
(DNA)'의 상상력과 진화예술론의 구축*

「문학과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오윤호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목 차〉

- I. DNA 확장으로서의 (DNA)'
- II. 문명유전정보(DNA)'의 개념과 특징
- III. (DNA)'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양상과 탈식민성
- IV. 「문학과 이데올로기」의 판본 검토와 진화예술론의
가능성
- IV.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최인훈의 「문학과 이데올로기」를 분석하여, 문명유전정보(DNA)'의 상상력과 최인훈이 구조화하고 이론화하려고 했던 진화예술론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인훈은 인간과 문명을 이해하는데 진화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유전인자 DNA를 중심에 놓고서, “문명”을 또 하나의 호메오스타시스라고 말하고, 문명유전정보를 (DNA)'라는 기호까지 만들어 표현한다. 최인훈이 보기에 인간은 두 가지 진화의 과정을 경험하는데, 첫 번째가 생물학적인 진화이고, 두 번째가 문명적 진화이다. 각각의 진화는 DNA와 (DNA)'을 가지고 있고, 개체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문명은 계통발생을 반복하며 진화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최인훈은 「문학과 이데올로기」에서 진화예술론의 핵심적인 이론 구축을 시도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 B8096301).

1. 최인훈, 「문학과 이데올로기」, 『꿈의 거울-최인훈 문학예술론집』, 우신사, 1990.

하고 있다.

「문학과 이데올로기」는 최인훈 예술론의 근원을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최인훈 예술론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가 갖는 가능성과 한계 또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문학과 예술, 생물학이 상호 교섭하는 양상을 이해함으로써, 21세기 융복합 지식으로서의 문학이 갖는 위상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주제어 : 최인훈, 문학과 이데올로기, (DNA), 진화예술론, 문명유전정보, DNA

I. DNA 확장으로서의 (DNA)

최인훈의 진화론적 예술론은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되풀이한다.”라는 문장 혹은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내용은 에른스트 헤켈이 주장했던 반복발생설에 나오는 생물학적인 진화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최인훈은 『광장』으로부터 『화두』로 이어지는 작품 속에서 개체적 생명의 반복 진화를 재현하거나, 생물·인간·문명을 관통하는 진화론적인 문학예술론을 구체화했다.²

최인훈이 정의한 진화란 “지구의 탄생으로부터, 지금까지 50만 년 전 사이에 걸친 생명의 발생, 변화, 개선, 완성되는 과정”³이다. 인간은 두 가지 진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첫 번째가 생물학적인 진화이고 두 번째가 문명적 진화이다. 최인훈은 자신의 문학론 및 문명론을 논하는 글들에서, “생물적 종과 문명적 종의 합일체로서의 인간”(「문학과 현실」 중에서), “생물적 종과 사회적 종”(「외설이란 무엇인가」 중에서), “인간의 행위는 물리적, 생물적 기초 위에 문화적 부분이 덧붙여진 것이다.”(「문학은 어떤 일을 하는가」 중에서), “나는 인간을 이중의 신체를 가진 생물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신체는 생물로서의 그것이다. 둘째 신체는 인간 문명의 축적물인 관념의 집적이다.”(「원시인이 되기

2. 본고는 「최인훈 문학의 기원과 진화론적 상상력」에서 최인훈이 내세우는 진화론적 예술론이 에른스트 헤켈의 개체발생설에서 시작되었음을 밝히고, 최인훈의 여러 에세이와 작품 속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 정리하였다. 또한 생물진화론적인 시각으로 『광장』의 이명준의 '내적 진화', 『구운몽』과 『서유기』에서 미이라와 화석을 통해 상징하는 생명 진화의 반복성 및 시간의 역설을, 『화두』에서는 최인훈 문학을 개통발생설로 인식하는 내용 등을 분석하였다.(오윤호, 「최인훈 문학의 기원과 진화론적 상상력」, 『서강인문논총』 56집, 2019, 참조)

3. 최인훈, 위의 책, 257쪽.

위한 문명한 의식」 중에서) 등으로 표현하며, 인간이 생물이면서 문명을 만들어내고 향유하는 개체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개체적 생명으로부터 문명인이 되는 과정을 ‘이중의 진화’로 강조했다.

진화론적인 상상력이 최인훈 예술론의 근본적인 조건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가운데, 『꿈의 거울』에 수록된 「문학과 이데올로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글이 생물학적인 진화의 기본 조건인 DNA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을 확장하여 문명유전정보 (DNA)라는 개념 혹은 기호를 만들고, 그 속성과 실제 역사 속에서의 작동 양상을 설명하고, 인간 행동의 기호화적인 측면을 구조화하며 예술 이론으로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에른스트 헤켈의 개체계통발생설과 사회생물학의 논점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한국 문학 및 예술에 있어서 ‘방법으로서의 예술론’을 기호화하고 구조화하는 작업이 생물학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과 이데올로기」는 매우 이례적이지 않을 수 없다.

「문학과 이데올로기」에서 최인훈은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되풀이한다.”를 설명하면서 “개체발생의 시간표”가 유전 정보 물질 “DNA”라고 정의한다. DNA 속에 수십 만 년에 걸쳐서 진화한 유전 정보가 담겨 있다는 뜻이다. 최인훈에게 있어서 DNA는 인간과 다른 생물을 비교하는 근본적인 기준점이며, 문명유전정보인 (DNA)로 확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출발점이다. 1952년 DNA에 유전형질이 담겨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⁴, 1953년에 그 염기서열이 이중나선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공식화⁵되면서, 유전자가 진화의 단위로 부상하면서 현대생물학의 기초가 마련되었다.⁶ 그러한 생물학적 지식에 기반하여, 최

4. 유전자(gene)에 대한 연구는 187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레고어 멘델(G. J. Mendel)은 1865년 완두콩을 이용해 멘델 법칙을 발견하면서 과학적으로 유전자의 존재를 추론해 냈지만, 큰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5. J. D. Watson & F. H. C. Crick, “Molecular Structure of Nucleic Acids: A Structure for Deoxyribose Nucleic Acid”, *Nature* 171, 1953, pp.737~738.

6. 간단하게 유전자(Gene)와 DNA(deoxyribonucleic acid)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유전자는 “부모가 자식에게 특성을 물려주는 현상인 유전을 일으키는 단위”로, “본질적으로 정보일 뿐인 유전자가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발현이 되어야 하는데, 그 발현은 DNA가 RNA에 복사되는 전사(Transcription)와 RNA가 단백질로 바뀌는 번역(Translation) 과정”을 말한다. 이때 특정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전체를 합한 것을 게놈(genome)”이라고 한다. (『두산대백과사전』(doopedia.co.kr)에서 “유전자” 항목)

인훤은 자신의 예술론에 DNA 지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물질이 생명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에 대하여 얼마만한 양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떤 시차를 가지고 합성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중략> 말 그대로 모든 순간, 모든 미세한 분화를 일으키는 지시의 분절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아직도 모르는 그대로다.

<중략> 사람을 뺀 다른 모든 생물의 용의주도함·엄격함은 그러나 여기까지다. 그들은 애초에 DNA에 지시된 바대로 자기를 이루어내고, '씩어진 바대로' 움직이고, 먹고, 새끼를 품고, 계통발생의 되풀이에 쓰이는 시간이 지나면 낳는다. 생물은 여기서 끝난다. <중략> 생물은 DNA의 노예라고 할 수 있겠다. 그는 DNA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72~73쪽)

DNA가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발현될지는 모른다고 설명하면서 인간이 아닌 생물들이 “DNA에 지시된 바대로” “씩어진 바대로” 살아가는 인간을 뺀 생물들은 DNA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는 “DNA의 노예”로 “DNA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시각은 이미 수십 만 년의 역사 속에서 유전정보가 축적된 유전자에 의해서 동물들의 사회적 행동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회생물학의 유전자 결정론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유전자 결정론은 최인훤이 문명유전정보 (DNA)와 DNA∞을 창안하는데까지 이어지게 된다.

최인훤은 인간도 동물처럼 DNA에 따라서 진화를 거듭하는 존재로 본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들이 DNA의 노예인 것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DNA와 (DNA)에 따라 이중으로 진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문명진화정보를 DNA와 같이 정보 개념을 덧붙여서 “(DNA)”라는 기호로 만들게 된다.

“최인훤의 사유가 인류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설명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오인영은 그 설명모형의 근거가 “인간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생물적 탄생×문명적 탄생>이라는 “이중발생”이 있어야만 자기 정체성을 쌓고 다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있다고 말한다.⁷ 그러면서 “이중발생”이나 “(DNA)”이라는 최인훤식 개념이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1976)에서

7. 오인영, 「해제: 최인훤의 사유에서 역사의 길을 만난다」, 최인훤 저, 『바다의 노래』, 삼인, 2012, 576~577쪽.

주장한 “밈(Meme)”보다 먼저 사용되었지만 주목받지 못했다고 아쉬워한다.⁸

「문학과 이데올로기」는 1979년에 출간된 산문집인 『문학과 이데올로기』에 수록되어 있는데, 원래 글 자체는 1977년 1월 1일 출간된 『현대 이데올로기의 제문제』(우신사, 1977)라는 책에 이미 수록되었다. 리처드 도킨스의 책이 1976년 10월 28일에 출간된 점에서 본다면⁹, “유전자가 아닌 새로운 복제자”라고 표현했던 밈(meme)이 최인훈 식의 문명유전정보 (DNA)보다는 앞서 제안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문명유전정보에 대한 언급은 리처드 도킨스가 처음으로 제안한 것도 아니었다. 1975년에 사회생물학을 주창하며 “인간의 문화와 행동의 모든 측면이 모든 동물의 행동처럼 유전자 안에 암호화되고 자연선택에 의해 형성된다.”고 말하는 에드워드 윌슨의 『사회생물학 : 새로운 종합』이 출간되었다. 윌슨은 무엇이든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유전자 결정론자였는데, “도덕이나 종교같은 인간의 정신적 문화도 유전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며 “문화도 유전자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1859)을 쓴 이후로 인간은 어떻게 생물학적인 조건으로부터 사회와 문화, 문명을 이루며 살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인간 문화(문명)에 대한 진화론적인 이해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생물학적인 진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면서도 사회적 동물에 관한 연구도 함께 전개시켰다. 『인간과 유래』에서 동물들의 행동 유전, 즉 동물들의 문화에 관한 사례들을 소개하게 되는데, 동물에게도 특정 행동을 배우고 활용하는 능력이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이 인간의 문화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 문화를 “행동 방식에 따른 정보 전달의 수단”¹⁰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최인훈의 주장은 가깝게는 리처드 도킨스와 연결되어 있고, 에드워드 윌슨이 주장한 사회생물학을 지나 찰스 다윈의 진화론적 시각까지 이어져 있다. 리처드 도킨스의 경우는 시간상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

8. 위의 책, 577쪽 각주 40번 참조.

9. Michael Rodgers, “The story of *The Selfish Gene*”, LOGOS 28/2, 2017, p.54.

10. 김관선, 「『인간의 유래』와 다윈의 진화론」, 찰스 다윈 저, 『인간의 유래』, 한길사, 2009, 29쪽.

기 힘들지만, 에드워드 윌슨을 비롯한 사회생물학의 경우는 최인훈이 관련 책과 생물학 지식을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논의는 사상적·학문적 업적을 단순히 낱짜 선후로만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가 인간의 행동과 문화 변동에 깊이 관여한다고 주장하는 진화생물학의 거대한 흐름 속에 최인훈의 진화론적인 사유를 위치시키기 위함이다. DNA에 상응하는 문명유전정보를 최인훈이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진화론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예술론을 펼쳐내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해 볼만한 지점이다.

II. 문명유전정보(DNA)의 개념과 특징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명유전정보를 누가 먼저 언급했느냐라기보다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론화하고 있느냐이다.

무엇보다도 최인훈은 (DNA)라는 흥미로운 기호를 제안한다. 인간 또한 다른 생물들이 DNA의 감옥에 갇혀듯 “생물적 삶이라는 원圓”에 갇혀 있지만, 이 원 밖에 “또 하나의 껍질인 문명적 삶이라는 외圓外圓”들이 생겨나서 그 안에 살게 된다.(73쪽) 이 원들은 나이트처럼 늘어나고, 다른 원들 끼리 충돌하고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논리를 구체화하기 위해 DNA에 괄호를 두르고 복수의 표시로서 아포스트로피 “'”를 붙여 (DNA)를 만들어내게 된다. 영어의 축약어를 한자의 상형문자와 같이 재조합하여 새로운 기호인 (DNA)를 창조한다. 괄호는 DNA가 유기체의 내부(피부 안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아포스트로피(′)는 문화의 다양성을 의미하면서, 그것들이 축적되고 있음을 또 의미한다. 최인훈은 DNA의 진화는 “생물의 개체 안에서의 살갓으로 에워싸진 닫힌 공간 속에서의 진화”(73쪽)라고 생각하고, 그 “개체 사이에서의 진화”를 (DNA)의 진화라고 보았다. (DNA)는 하나의 생명개체와 다른 생명개체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호관계로부터 발생한다. 인간의 문화 혹은 문명을 설명하는데 있어 탁월한 ‘비유’가 아닐 수 없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최인훈의 (DNA)과 거의 동일한 개념을 사용한 것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쓴 리처드 도킨스다. 리처드 도킨스는 “문화적 진화와 유

전적 진화의 유사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자기복제자로 “밈meme”을 제안한다.

새로이 등장한 수프는 인간의 문화라는 수프다. 새로 등장한 자기 복제자에게도 이름이 필요한데, 그 이름으로는 문화 전달의 단위 또는 모방의 단위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 명사가 적당할 것이다. 이에 알맞은 그리스어 어근으로부터 ‘미뎀mimeme’¹¹⁾이라는 말을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진gene(유전자)’이라는 단어와 발음이 유사한 단음절의 단어다. 그러기 위해서 위의 단어를 밈meme으로 줄이고자 하는데, 〈중략〉 이 단어가 ‘기억memory’, 또는 프랑스어 ‘mème’¹²⁾이라는 단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¹³⁾

진화론자들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원시 수프’ 비유를 사용한다. 생명체는 원시 유기 수프에서 생겨났으며,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복잡한 DNA를 가진 생물로 진화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원시 수프 비유를 들어 리처드 도킨스는 인간 문화라는 새로운 수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자기 복제자 역할을 하는 ‘밈(meme)’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다. 밈은 “모방 같은 비유전적 방법을 통해 전달된다고 여겨지는 문화의 요소”¹⁴⁾이다. 리처드 도킨스에게 진화란 진화 단위인 유전자가 자기복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밈이라는 용어 속에는 모방의 의미가 강력하게 담겨져 있고, 발음의 편의성을 강조하여 용어를 만들어낸 것이다. 1981년 윌슨은 물리학자 찰스 럽스덴과 함께 “문화 진화에서 기본적인 전달 단위”라는 ‘문화유전자 culturegen’ 개념을 도입”¹⁵⁾하기도 한다. 이 용어는 문화(cultural)와 유전자(gene)를 기계적으로 붙인 것에 불과하다.

최인훈은 문명유전정보 (DNA)와 DNA를 비교·대비하면서 (DNA)의 특징을 설명하려고 한다.

문명은 사람이 생물로서 타고난 —— DNA에 의해 움직이는 행동 부분이 아니고, 인간의 개체들이 무리를 지어 살면서 그들 사이에서 진화시킨 제2의 호메오스타시스이기 때

11. “모방하는 일imitating thing”이라는 뜻.

12. 한국어로 번역하면 명사 앞에서는 “같은” 명사나 대명사 뒤에서는 “자신, 그자체”이다.(네이버 프랑스어사전, 참조)

13. 리처드 도킨스, 홍영남·이상일 옮김, 『이기적인 유전자』, 을유문화사, 2014, 322~323쪽.

14. 수전 블랙모어, 『밈』, 바다출판사, 2010, 12쪽.

15. 위의 책, 88쪽.

문에 그것의 (문명의) 개체생적 유지나 개체생적 발생(즉 후대에 의한 계승)이라는 것은 순전히 후생물 단계에서의 약속과 그 약속의 교습에만 의존한다.

여기에서 호메오스타시스(homeostasis)는 “생명 생체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생명 현상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또는 현상”¹⁶을 말하는데, 하나의 개체가 영양분이 부족할 때 영양분을 찾아 본능적으로 움직이거나, 갈증이 생겼을 때 물을 찾는 것과 같은 무의식적이고 생물학적인 반응을 의미한다. 즉 인간에게서 문명이 ‘제2의 호메오스타시스’라는 말은, 생명체에게서 본능적으로(DNA에 따라) 생존을 위해서 생명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에게 문명은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생명 활동의 또 다른 양상인 것이다. 또한 문명은 태어난 이후에 개체들 사이의 “계약”과 서로 배우고 익히는 과정(“교습”)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DNA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리 행동하게 되지만, (DNA)’는 의도적 의식적으로 배워서 행해야 하는 인위적인 행동이다.

문명 행동의 생물·물리적 부분을 문명 ‘행동’이라 부른다면, 이것 — 즉 문명인의 신체의 운동, 기계의 조작, 기호의 구성은 물리적으로는 생물적 행동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한 행동을 지시하는 의식은 문명 ‘의식’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의식을 (DNA)’라고 쓰기로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사람의 행동 = DNA×(DNA)’ 혹은, 행동 = (DNA)×(DNA)’이다. (DNA)’에는 DNA가 너무 비슷한 성질이 보인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행동은 “문명 ‘의식’”을 통해서 지시를 받게 되고, 이것은 본래적인 DNA와 결합이 되어 동물적이면서도 문명적인 “인간의 행동”(DNA×(DNA)’이 가능하게 한다. 서로 다른 조건과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최인훈은 DNA와 (DNA)’의 상동성에 주목하고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주장한다.

DNA가 자기 속에 계통발생의 단계를 기억으로서 지니고, 그 기억의 되풀이에 의해서만 개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처럼, 문명유전정보라고 할 (DNA)’도 그 자신 속에 역사적 진화의 기억을 지니고 있다.(74쪽)

16. 『표준국어대사전』 ‘호메오스타시스’ 항목 참조.

마지막으로 DNA와 (DNA)의 유사점은 둘 다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기억은 유전정보가 DNA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의 진화 과정의 역사가 DNA에 담기듯이 문명진화의 역사 또한 최종적인 문명유전정보에 담기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모든 기억의 총체”가 (DNA)의 내용이라고 말하며, “로케트를 쏘아 보내는 우주기지의 요원”의 예를 들며 인류 문명의 모든 지식과 기억의 축적물로 표현하고 있다.

DNA와 (DNA) 모두 인류 문명을 진화 발전시키는 유전적 형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둘을 명확하게 구별하려고 한다. 첫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다.

DNA는 정보이면서 실재이기도 하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자기를 완성시키지만, (DNA)에는 그러한 필연성이 없다. 그것은 — (DNA)는 배우면 있고 배우지 않으면 없다. DNA와 (DNA) 사이에는 ‘선택·습득’이라는 단절이 있다. 이것은 ‘의지’에 의해서 연속되어지는 것이지 물이 아래로 흐르는 듯한 물리적 필요성에 의해 접합되어 있지는 않다.(74쪽)

DNA는 그 자체만으로도 생물학적인 조건을 스스로 가지고 있고, 자신이 갖고 있는 유전정보를 적절하게 골라 환경에 맞게 현실화시키면 되지만, (DNA)는 이전의 문화유전정보를 익혀서 배워 새로운 문명을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로 (DNA)는 생물의 개체발생과는 달리, 그것의 (당해 문명) 성체형태成體形態 즉 최종 형태만으로 이식·전달이 가능하다는 성격을 갖는다. <중략> 그것은 슬한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서로 이식·통합·축적·정리되어 온 물건이다.(74쪽)

최인훈은 개체계통발생설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 개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개체가 속한 종이 각각의 진화 단계에서 획득한 모든 유전 정보가 그 개체의 DNA에 누적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DNA)의 경우는 “성체형태”로도 이식·전달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화석연료 연소에 대한 화학적 이해나 기계장치의 물리적 역학을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자동차라는 문화(성체) 자체를 경험하고 우리 생활에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DNA와 (DNA)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논의는 「문학과 이데올로기」의

“②”에서 유럽 문명과 한국 문명의 차이라는 실제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보다 정교하게 정리된다.

III. (DNA)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양상과 탈식민성

「문학과 이데올로기」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①”로 표시된 부분에서는 생명 진화의 양상을 DNA와 (DNA)로 설명하며, DNA로부터 (DNA)가 파생되는 양상과 두 유전정보의 관련성 및 차이점을 밝히고 있고, “②”에서는 “유럽적 (DNA)”를 언급하며, 유럽이 “문명개체발생”을 통해 진화해 왔다고 밝히며 한국의 (DNA)와 비교한다. “③”에서는 문명정보로서의 (DNA)를 문학이라는 제도에 적용하여 “현실을 위한 기호행동”과 “현실로서의 기호행동”을 구분하며 기호학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①”에서 “②”로 넘어갈 때는 DNA와 (DNA)의 작동 원리가 이론과 실제 응용의 방식으로 두 부분을 연결하고 있다면, “②”에서 “③”로 넘어갈 때는 문명 진화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어서 문학(언어)의 구체적인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문학과 예술의 진화적 양상으로 확장하고 있다. 「문학과 이데올로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데올로기를 언급하지 않고, 전체 내용은 (DNA)를 중심으로 그 개념을 설명하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서로 다른 문명개체발생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문학 활동의 기호학적(언어의) 특징이 내포한 (DNA)의 양상으로 초점이 모아져 있다.

「문학과 이데올로기」는 『현대 이데올로기의 제문제』에 처음으로 실린다. 『현대 이데올로기의 제문제』(민음사, 1977.1.1.)는 한국사회과학연구소가 출판한 책으로 사회·정치 분야에서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논문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목차를 살펴보면, 「이데올로기 비판」, 「법·정치·이데올로기」 다음에 「문학과 이데올로기」가 수록되어 있고, 「마르크스주의의 이론과 실제」,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 등의 글들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문학과 이데올로기」를 최인훈이 구상했을 때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예술론에 관한 글을 기획하고, 그 관련성을 깊이있게 논의하려고 했을 것이다.

최인훈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글의 말미에 “*”로 표시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담겨 있다. 최인훈은 (DNA)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면서도 이데올로기에 대해 깊이 사유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 이 글에서는 ‘이데올로기’에 대해 직접 풀이한 바 없으나, 이데올로기란 말을 글 속에서 쓰인 (DNA)란 개념의 동의어, 또는 현실적 (DNA) 때로는 상상적 (DNA) 등으로 바꿔 이 글을 읽어도 무방하다.(92쪽)

인용된 부분에서 최인훈은 이데올로기란 현실적·상상적 (DNA)라고 정의한다. “③”의 기호학적 설명에 따르면 동물적 삶, DNA의 세계를 제외하고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이 사실 ‘이데올로기’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의 전체 내용에 빗대어 보자면, 이데올로기란 진화 과정의 결과물이며 인간만이 갖고 있는 문명유전정보와 같이 인류 문명의 형성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DNA)을 이해하는 것이 곧 이데올로기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시’ 때문에 「문학과 이데올로기」를 읽는 사람은 진화론의 시각에서 DNA가 (DNA)로 확장되고 문학예술이론으로 심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다가, 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어 전체 글의 내용을 이데올로기로 다시금 재인식하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

「문학과 이데올로기」의 세 부분 중에서 “②”의 내용이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재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②”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①” 내용의 연장으로 DNA와 (DNA)의 차이를 다루는 내용과 “②”에서만 언급되는 유럽 문명의 정치체제와 한국의 정치체제를 (DNA)의 성격으로 분석하는 내용이 서로 뒤섞여 다루어진다. 표면적으로는 “①”에서 다루었던 DNA와 (DNA)의 차이를 구체적인 예로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그 이면에는 유럽 정치체제와 한국 정치체제를 비교하면서 한국 정치체제의 한계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유럽적 (DNA)라는 것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엄격히 말하면, 유럽이 되는 길밖에는 없다. 왜냐하면 유럽적 (DNA)는 그 속에 그것이 개체로 발생하기에 이른 계통발생적 사다리를 가지고 있고, 그 사다리의 가로막대의 숫자는 육십대로 말하자면 무한하기 때문이다.(78쪽)

최인훈은 20세기 유럽 문명이 문명의 역사에 따라 차곡차곡 자신들만의 문명유전정보(DNA)를 쌓아오면서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적 (DNA)를 모두 이해한다는 것은 유럽이 되지 않고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한국 문명은 유럽 문명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유럽 문명의 “계통발생적 사다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유럽 문명을 흉내낼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완벽한 형태의 문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최인훈의 설명에서 우리는 유럽적 (DNA)를 이데올로기로 보았을 때, 이데올로기가 문명의 역사에서 형성되고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식민지 지식인의 좌절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면서 최인훈은 “기억하기”의 행위를 통해 비유럽 사회의 (DNA)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언어의 작동원리가 매우 중요하다. DNA가 유전정보의 누적으로 개체적 완결성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DNA)”이고 “복합적인 (DNA)의 표기 수단”인 언어는 “자기의 창고인 원물과의 끊임없는 맞춰보기”를 통해서, “자기 사회의 전통에 눈을 돌리고 끊어졌거나 묻혀 있는 것을 다시 잇고 캐어내는 길을 통하여 자기들의 기억, 곧 자기들의 (DNA)를 되찾아야 한다”(79쪽)고 주장한다. 그래서 현재는 유럽적 (DNA)와는 다른 (DNA)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기억하기를 통해서 선대가 가지고 있었던 우주관, 윤리관, 과학기술, 경제체제, 농업과 상업화, 정치 제도와 신분 제도에 이르기까지 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데올로기가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양상을 제시한다.

이러한 모든 일의 현실화에는 비록 이르지 못할망정 그런 행동들에 대한 준비로서의 의식은 사상의 모습으로 널리 퍼지고 토론되고 있었으며, 사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상의 주체가 있다는 말인데 그 주체들이 그만한 의식의 높이를 공상 속에서 만들어냈을 리는 없고 보면, 현실에서도 많은 적든 그런 원칙 아래 움직였을 것이다.(80쪽)

이러한 설명에서 최인훈은 현재 우리에는 없는 것으로 간주된 이데올로기의 작동 방식을 발견해낸다. 우리(비유럽)에게도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다양

한 사상과 의식이 작동하면서 나뉘는 (DNA)가 만들어졌었다. 그것을 ‘기억하기’ 혹은 “습득”과 “학습”을 통해서 드러내는 작업이야말로 우리(비유럽) 문명이 나아갈 “길”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억하기’는 탈식민주의 전략으로 매우 유효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DNA)는 현재의 시각에서 ‘기억하기’를 통해 원물과 대비하여 그 계통발생의 사다리를 찾아야 하고, 진화에의 길이 열어야 한다.

언어는 (DNA)의 (DNA)로서 사람의 경험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엄밀하게 DNA처럼 자체가 완전한 자립적 정보라는 것과는 달리, 경험의 쌓임에서 추상되어진 보다 근원적 기억의 기호체계이기 때문에 자기의 참고인 원물(原物)과의 끊임 없는 맞춰보기라는 재고조사를 게을리할 때는 곧 빈 딱지가 되고 만다.(79쪽)

DNA와 (DNA)의 혼동, —— DNA는 일단 더 이상의 계통발생상의 진화가 끝난 것임에 비해서 (DNA)는 원칙적으로 진화에의 길이 끝없이 열려 있고, 열려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한 깨달음이 없는 데서 오는 탈이 생긴다.(81쪽)

두 부분의 인용에서 최인훈은 (DNA)의 특성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현재의 (DNA)는 이미 지나온 진화 과정을 ‘언어를 통한 기억하기’를 통해 구체화하고 또한 복원함으로써 계통발생의 사다리를 늘려가면서 보다 더 많은 문명발생정보를 가진 (DNA)가 되어간다. 그리고 현재의 (DNA)는 진화가 끝난 최종 완성체가 아니라, 미래로 열려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DNA)를 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으로부터 최인훈은 유럽적 (DNA)에 대한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DNA)를 긍정하면서도 진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화를 거쳐, 최인훈은 한국 정치 현실을 비판하게 된다.

한국의 정치사에서 1960년 후반에서 1961년 전반 사이의 반년 남짓한 짧은 동안을 빼고는 지방자치제도는 실현된 적이 없다. 근대 유럽적 정치 제도에 있어서 지방자치가 빠진 것을 가리켜 과연 그것을 유럽형 정치 제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지방자치제는 근대 민주주의의 일부가 아니라 바로 원칙이다.

〈중략〉

근대 유럽형 정치 제도라는 개체발생에 필요한 계통발생의 중요한 고리가 빠져 버렸거나 억제되었기 때문에, 아무튼 발생하기는 한 해방 후 한국 정치라는 이 개체는 혹시 그 개체의 종의 계통발생의 어느 진화 단계에 머문 기형아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니었을까?(82~83쪽)

위의 내용에서 최인훈은 자신의 진화론적인 시각 속에 담긴 제국주의적인 시각으로 한국 정치 시스템의 낙후성과 식민지성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은 유럽의 지방자치를 흉내낼 뿐 그 정치시스템이 갖고 있는 본질에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박정희 군대의 쿠데타로 인해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체제는 서구유럽형을 모방한 것으로, 자기만의 문화형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기형아”에 가깝다고 논평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1960년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강조하면서도, 이 글이 쓰여지고 있는 1970년대의 정치 현실의 특징이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통성과 자기 혁신(진화)이 없는 당대 정치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2]”에서 최인훈의 DNA와 (DNA) 논의는 진화론적 지식 체계 속에서 문명 진화의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럽적 (DNA)에 대한 열등 혹은 피식민 의식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스스로의 (DNA)를 진화시킬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탈식민주의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실 진화론은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간한 후로 끊임없이 사회적 담론과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사회진화론의 경우, 제국주의의 제3세계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되었다는 혐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부국강병의 이념적 목적을 명료하게 하는 지식 담론으로 받아들여졌다. “적자생존”, “약육강식”이 DNA와 (DNA)으로 바뀌었을 뿐, 진화론은 생물학 지식 체계와 사회 담론의 갈등 양상을 고스란히 담아내게 된다.¹⁷ 이러한 맥락에서도 최인훈의 이론은 진화론적 사유의 이데올

17. “월슨의 사회생물학은 두 가지 이유로 많은 논쟁거리가 되었다.〈중략〉 둘째는 동물의 행동이 유전적 기초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사회생물학자의 이같은 사상이 과학적 객관성의 합리적 기준을 벗어나지

로기적 성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IV. 「문학과 이데올로기」의 판본 검토와 진화예술론의 가능성

「문학과 이데올로기」는 『현대 이데올로기의 제문제』(1977)에 다른 필자들의 글과 함께 출판된 이후에 3번에 걸쳐서 최인훈 저서로 출판되며, 모두 4편의 이본이 존재하게 된다.

작가 전집인 『문학과 이데올로기』(1979)에 실렸을 때는 책 자체가 특별한 기획 의도나 내용상의 일관성을 가지고 구성되지 않았으나¹⁸, 『꿈의 거울』(우신사, 1990)의 경우는 부제가 “최인훈 문학예술론집”이고 책 표지에 내용을 소개한 문구에는 “본서는 최근작 〈인간의 Metabolism의 3형식〉을 포함, 그의 문예론 정수를 뽑아 편집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최인훈 문학의 예술론을 집대성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독자에게」에서 이전에 쓰여진 네 권의 산문집(『문학을 찾아서』, 『문학과 이데올로기』, 『유토피아의 꿈』, 『길에 관한 명상』)에서 “문학의 본질을 이론적으로 파악”하는 “문학론, 혹은 예술론이라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글”을 “시간 순서대로” 모아서 만들었다고 밝힌다. 「문학과 현실」로부터 시작되어, 「예술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Metabolism의 3형식」으로 끝나는 일련의 과정은, 최인훈 문학론·예술론이 문명사와 생물학적 실존성 사이에서 시작되었으며, 결국 (DNA)의 예술계통발생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의식은 산문집 『바다의 편지』(2012)로 이어지게 된다. 이 책의 안내문과 해제를 쓴 오인영은 기존 산문집에서 핵심적인 글들을 뽑아 “1부 문명 진화의 길—문명 DNA의 힘과 흠”, “2부 근대 세계의 길—문명 DNA의 빛과 어둠”, “3부 한국 역사의 길—문명 DNA의 앓과 꿈”로 분류해 놓

않았더라도 이데올로기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행동 양상이 유전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월슨의 아이디어는 마침내 이데올로기 논쟁까지 수반하게 되었다.”(홍영남, 「사회생물학이란 무엇인가」, 대학원신문, 2006.3.13)

18. 정영훈, 「최인훈 전집 〈문학과 이데올로기의 제 문제〉」, 『국제어문』 74권, 405쪽. “우선 수록된 글들의 서지사항을 알 수 없어 글의 성격과 글이 발표된 맥락, 글들의 시간적 순서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텍스트에 오류가 있어도 비교하여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 〈중략〉 본격적인 문학-예술론에서부터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단편적인 글에 이르기까지 무질서하게 편집되어 있다.”

으면서 “인류 문명의 역사적 진화 과정에 대한 최인훈 특유의 거시적 접근법과 통찰력”을 드러내고, 현대 문명의 여러 양상과 한국의 현재에 대해서 주목하게 한다.

『꿈의 거울』과 『바다의 편지』 모두 최인훈 예술론 및 문명론에 대한 명료한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작가 스스로가 자신의 글과 산문에서 예술과 문학에 대한 비평적 가치와 이론적 구조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꿈의 거울』이 더 유의미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문학과 이데올로기」를 놓고 봤을 때, 『꿈의 거울』에 실린 「문학과 이데올로기」에 “**”라는 표시를 달고 또 하나의 각주가 더 제시되어 있다. 또 다른 「4」라 할만큼의 분량을 할애하며 추가적으로 (DNA) 예술론을 펼쳐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꿈의 거울』에 실린 「문학과 이데올로기」가 보다 더 최인훈 예술론의 본질에 가깝다.

「3」은 “문명정보로서의 (DNA)”을 가지고 “문학이라는 제도는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여기서 문학을 언급한 이유는, 앞 내용에서 (DNA)의 (DNA)라 말했던 언어, 그 언어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예술 중에 문학이 대표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간현상의 분류라는 도표를 제시하며, 생물학적인 조건을 배제한 상태에서 인간행동이 (DNA)으로부터 나오게 되며, 인간행동은 “사람의 살갓 바깥의 물리적 외계에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본질적이며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는”(84쪽) “현실행동(A)”과 “(DNA) 자체의 전달을 본질적이며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는 행동”인 “기호행동(B)”으로 나뉘고, “기호행동(B)”는 다시 “현실을 위한 기호행동(B)”와 “현실로서”의 기호행동(B)”로 나누어 놓는다. 이러한 구분 속에서 예술론을 전개시킨다.

예술은 기호행동이다. 그것은 상상적 (DNA)를 불러내는 것을 본질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중략> 다른 기호가 어떤 특정의 (DNA)을 전달하기 위해 쓰이는 데 비해서, 예술로서의 기호는 기호가 가리키는 (DNA)가 정보로서가 아니라 존재가 되는 것을 승인한다는 서품의식과 같이 사용된다. 그런데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이어진 관

19. “현실로서의”라는 부분에 대해 최인훈은 “현실과 꼭 같은 자리가 된 시공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술 표현의 차원에서 이해했을 때 ‘허구·가상의 재현 공간’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계의 사다리다.(87쪽)

더 옮겨 말하자면 그 전술(DNA)을 존재에까지 승격시키는 것이라고 하면 예술이라고 자 하는 일은 (DNA) 자체를 넘어서 우주 자체를 환기하는 것이라는 말이 된다.(88쪽)

문학은 언어를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언어에 의해 환기되는 (DNA)가 로봇의 머리에 시어진 입력량이 아니라, 무한한 존재를 무한성을 줄임이 없이 복제해서 공명할 수 있는 존재의 사상형相似形이라는 것을 직관하고자 한다.

최인훈은 예술이 기호행동이며, 존재로서의 (DNA)이며, “현재까지 쌓여진 (DNA)의 전량”으로, 우주까지 창조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즉 DNA가 하나의 종이 가지고 있는 유전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술 행위는 전체 예술 혹은 문명의 유전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현실로서의” 새로운 세계 (“우주”)를 창조해내는 행위인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최인훈은 로봇을 예로 드는데, 인간이 단순히 정보를 입력받는 로봇트가 안되도록 만드는 것이 언어를 활용한 인간행위이고 이것이 문학이라고 말한다. 즉 언어활동인 문학을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의 존재를 또다른 존재로 복제할 수 있으며, 또한 공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예술이 현실과는 어떻게 관련되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는 가운데, 예술에서의 모방론을 언급한다. “문학은 인생의 모방”이라는 시각은 문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 모두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에 해당한다.

“**”의 내용은 “**이 문제는 역사와 문학, 사실과 추상이라는 형식으로 끊임없는 문학이론상의 혼란의 샘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3] 앞부분에 제시했던 인간현상의 분류를 보다더 기호화한다. 가령 “A=DNA·(DNA)·(물리적 기재)”로 표시하며 이 수식이 타당한 이유를 길게 설명하게 된다. “인간현상=DNA”인데, 이때 DNA는 다시 “현실적(DNA)·(물리적 부분)”과 상상적 (DNA)·(물리적 부분)으로 나뉘게 된다.

DNA는 두 가닥으로 자신을 변환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변환이라는 것은 계통발생상의 한 고리가 다른 고리가 되는 현상을 말한다. 만약 ‘모방’이라는 표현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 모방은 (B)가 A와 (B)를 혹은 (B)와 (B)가 A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DNA

를 A와 (B)′와 (B)′가 함께 모방한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95쪽)

상상적(DNA)′는 물리적 상태를 바꾸는 흐름과는 거꾸로, (DNA)′→(A)→(B)′의 흐름을 끊임없이 되돌림으로써 전체의 직관을 이 인간현상이라는 회로에 동반시켜 주는 ‘전체를 지닌 부분’이다.

그러한 설명은 1970년대에 쓰여졌던 「문학과 이데올로기」가 DNA가 배제된 상태에서 “현실로서의 기호행동”에 초점이 가 있는 예술론을 DNA의 관점으로 확장한 것이다. (DNA)′도 현실적인 측면과 상상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놓았으며, “DNA·상상적(DNA)′·현실적(DNA)′의 전회로”를 구축하고 이들 사이의 “계통발생의 되풀이”를 통해 인간의 예술 활동을 설명하게 된다.

백영제는 현대 진화예술학의 역사가 깊지 않으며 진화론 학자들도 예술론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한다.²⁰ 쾌락 본능, 성 선택, ‘특별히 하기’ 등으로 예술 발생의 계기를 밝히고 있다. 진화론적인 맥락으로 예술론을 이야기 하지만, 기호화적인 언어 활, 문명유전정보(DNA)′와 개체계통발생설을 응용한 확장된 모방론으로 설명하려는 최인훈의 논의와는 문제의식과 논의방향이 다르다. 최인훈의 진화예술론은 DNA의 확장인 (DNA)′이 DNA·상상적(DNA)′·현실적(DNA)′의 회로 안에서 계통발생을 되풀이한다는 미학적 시를 전제로 한다. 이 시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DNA와 개체계통발생설이라는 생물학적인 지식이 필수다. 이러한 최인훈의 진화예술론은 「문학과 이데올로기」를 거쳐 「예술이란 무엇인가」과 「인간의 Metabolism의 3형식」²¹에서 구체적이고 도상적으로 심화된다.

IV. 결론

이상으로 최인훈의 「문학과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며, (DNA)′의 상상력과 최인훈이 구조화하고 이론화하려고 했던 진화예술론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최인훈은 인간과 문명을 이해하는데 진화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유

20. 백영제, 「진화예술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예술의 발생」, 『연대미술학 논문집』18, 2014, 53쪽.

21. 「인간의 Metabolism의 3형식」에서는 괄호가 사라진 “DNA”로 표시하고 있다.

전인자(DNA)를 중심에 놓고서, “문명”을 또 하나의 호메오스타시스라고 말하고, 문명유전정보를 (DNA)라는 기호까지 만들어 표현한다. 최인훈이 보기에 인간은 두 가지 진화의 과정을 경험하는데, 첫 번째가 생물학적인 진화이고, 두 번째가 문명적 진화이다. 이 둘은 DNA와 (DNA)이 존재하고 이들은 개체계통발생을 반복하며 개체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문명(혹은 문화)이 진화하고 발전한다고 보았다. 그 과정에서 최인훈은 「문학과 이데올로기」에서 진화예술론의 핵심적인 이론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찰스 다윈으로부터 리처드 도킨스와 에드워드 윌슨을 포함한 사회생물학적 경향과 관련된 내용을 「문학과 이데올로기」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문학과 이데올로기」 분석을 통해 최인훈 예술론의 근원을 살펴보고, 생물학적 시각에 따른 최인훈 진화예술론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기호학적인 언어 활동, 문명유전정보(DNA)와 개체계통발생설을 응용한 확장된 모방론 등을 구체화하며, DNA의 확장인 (DNA)이 DNA·상상적(DNA)·현실적(DNA)의 회로 안에서 계통발생을 되풀이한다고 주장한다. 예술의 개체계통발생설을 주장하는 최인훈의 시각은 일정한 가능성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유전자를 통해 사회와 문화, 예술까지 논의하고자 하는 입장은 사회생물학의 대표적인 학문적 경향이면서도 한계로 지적된 사항이다.

이러한 논의와 함 최인훈의 문명유전정보(DNA)와 리처드 도킨스의 밈 meme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보다 정교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예술이란 무엇인가」와 「인간의 Metabolism의 3형식」 분석을 통해 생물학적이면 서도 및 물리화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인간이 사는 실재 세계와 예술의 창조적 세계 사이의 미학적 관계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최인훈의 진화예술학을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최인훈, 『문학과 이데올로기』, 민음사, 1979.
- _____, 『꿈의 거울 - 최인훈 문학예술론집』, 우신사, 1990.
- _____, 『바다의 노래』, 삼인, 2012.
- Michael Rodgers, “The story of *The Selfish Gene*”, *LOGOS* 28/2, 2017, p.54.
- 김관선, 「『인간의 유래』와 다윈의 진화론」, 찰스 다윈 저, 『인간의 유래1』, 한길사, 2009, 29쪽.
- 김기우, 「최인훈의 예술론과 『화두』의 구조적 특징」, 『한국언어문학』56, 2006.
- _____, 『최인훈 소설 연구-최인훈의 예술론과 창작이론을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박사 논문, 2006.
- 김동광, 「사회생물학의 인식론적 경향, 그리고 그 대중적 차원들」, 『인간연구』18호, 가톨릭대학교 인간학 연구소, 2010.
-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을유문화사, 2014.
- 백영제, 「진화예술적 관점에서 살펴본 예술의 발생 계기」, 『현대미술학 논문집』18, 2014, 53쪽.
- 수전 블랙모어, 『땀』, 바다출판사, 2010, 12쪽.
- 오운호, 「최인훈 문학의 기원과 진화론적 상상력」, 『서강인문논총』 56집, 2019.
- 오인영, 「해제 : 최인훈의 사유에서 역사의 길을 만나다」, 최인훈 저, 『바다의 노래』, 삼인, 2012, 576~577쪽.
- 이한구, 「문화의 변화에 대한 진화론적 설명모형」, 『철학』94집, 2021.
- 정영훈, 「최인훈 전집 <문학과 이데올로기의 제 문제>」, 『국제어문』 74권, 405쪽.
- 홍영남, 「사회생물학이란 무엇인가」, 대학원신문, 2006.3.13.

Abstract

The Imagination of (DNA)' and Construction of Evolutionary Art Theory

Oh, Younho (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Choi In-hoon's "Literature and Ideology" and examine the imagination of Civilization Genetic Information (DNA)' and the aspects of the evolutionary art theory that Choi In-hoon tried to structure and theorize. Choi In-hoon is actively using the theory of evolution to understand human beings and civilization. With the genetic Information (DNA)' at the center, Choi In-hoon says that 'civilization' is another homeostasis, and the genetic information of civilization is the symbol of (DNA)'. In Hoon Choi's view, humans experience two evolutionary processes: the first is biological evolution, and the second is civilized evolution. Each evolution has DNA and (DNA)', and humans and civilizations as individual beings evolve by repeating phylogeny. In the process, Inhoon Choi is attempting to establish a core of evolutionary art theory in "Literature and Ideology".

"Literature and Ideology" shows the origin of Choi In-hoon's art theory at the core, and also suggests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biological understanding of Choi In-hoon's literature. Through this study, I was able to reconsider the status of literature as convergence knowledge in the 21st century by understanding the interactions between literature, art, and biology.

Keywords: Choi In-hoon, Literature and Ideology, (DNA)', Evolutionary Art Theory, Civilization Genetic Factor, DNA

논문 투고일 : 2021년 09월 18일 심사 완료일 : 2021년 10월 05일 게재 확정일 : 2021년 10월 05일
--